

구세주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철저한 반대생활로 자신을 죽이면 주체영이 삼위일체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1절에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니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분신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신이 들어 있기는 들어 있는데 마귀 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말처럼 타고 한평생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그 생명의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 마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구세주라면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고로 구세주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이지,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 그 구비요건은 능력인 것입니다. 첫째가 능력이고, 둘째는 그 능력에 따르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구세주가 되는 거지, 지혜가 없으면 구세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야,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바로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게 되어 있는 고로 맨 먼저 하나님이었던 영모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해와 하나님이 두 번째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성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허자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완전자가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세주라면 감로이슬성신을 내려야 한다

또한 구세주는 감로이슬성신을 내려야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이 되는 감로이슬성신이 이제그대로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육천년 만에 구세주가 나타나고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장본인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감추었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 장본인이 아니면 그 가려놓은 말씀을 누가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귀를 죽여 없애는 능력의 영이다

신앙은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예베소서 2장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선물이 빨강게 생겼는지, 노랑게 생겼는지, 파랑게 생겼는지 그 생김 모습이 성경에는 써어 있지 않은 고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는 영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런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보통 사람처럼 장성한 후 마지막에 밀실에 들어가서 마음의 투쟁을 하는 연단 가운데서 승리한 그 승리가 이제그대로 바로 구세주요, 그 승리가 바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양유류에는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서 삼신(三神)이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삼신(三神),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자유율법

그런고로 이 사람이 그 노고산과 소래산에 있는 밀실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의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지

적을 당하는 고로 과거를 생각하려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생각하면 관심의 음란죄가 되는 고로 관심의 음란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생각하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존심을 이기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는 존재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죄가 되는 고로 "나라는 존재 마귀를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을 하면서 그대로 나라는 존재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제그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인 고로 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웃고 기뻐해도 기뻐하는 음

란죄요, 좋아해도 좋아하는 음란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에 걸려지고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니까 나라는 것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더 미워해달라는 식으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라는 것은 대장 마귀새끼야! 대장 마귀새끼야! 이 마귀새끼를 더더욱 미워해달라"는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미우니까 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일부러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을 잃고 완전히 까무러쳤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가운데서 몇 시간씩 누워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까무러쳤다고 생각이 되니까 즉시 일어나자마자 이 나라는 것이 미우니까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져가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를 죽이는 것이 자유율법이지, 마귀를 예뻐하는 것은 자유율법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으면 색은 피가 몸 밖으로 배출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줄을 모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가 되니까 나라는 것이 생각을 주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는 생활로 전념하게 되니까 바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마귀가 죽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마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야 마귀가 강해지고 마귀가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죽이지만 마귀를 계속해서 목을 조르면 결국은 마귀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으면 소·대변으로 시커먼 피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마귀 죽은 시체가 나오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흐려졌던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이제그대로 몸이 날아갈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마귀가

죽으면, 마귀가 죽은 다음부터는 나라는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살던 집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도 찾아갈 수 없는 고로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주소를 물어 물어서 찾아갔다고 그랬죠?

자기 이름과 거주지도 잊어버려야 중생한 사람이다

이것이 중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중생이라는 건 완전히 인간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고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지만 자기가 사용했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집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주소를 물어 물어서 찾아갔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 마귀의 속성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로 들리고, 말씀 자체가 전부다 조작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고로 불신만 하게 되니까 제단 못 나오게 됩니다. 이 승리제단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마귀를 죽이는 장소인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그 마귀를 죽이니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제단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제단을 나와야 마귀가 죽는 것이지, 자기 속에 마귀가 죽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이지 마귀가 살아 있는 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2001년 8월 18일 말씀 중에서 말씀정리 박명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아무리 미워해도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

밀실은 해와이긴자께서 의인을 키우기 위해 눈길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마음의 투쟁을 벌이는 장소다.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해와 이긴자는 이 사람의 마음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마음으로 조금만 죄를 지어도 불호령은 말할 것도 없고 불러다가 개 패듯이 한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그야말로 처절한 자신과의 집착된 싸움인 아니면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다. 인간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언제 어느 때 치고 올라와 죄를 짓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 초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각성된 상태, 집중된 상태의 하루하루가 이어진다.

나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청년을 한 방에 재우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밀실에서 이 사람을 유난히 미워하는 청년이 있었다. 필 해도 못마땅해하고 따라다니면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갖은 농간을 부리시네 하면서 회롱

하고 악을 올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아하고 존중해 주고 사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있는 말 없는 말로 해와 주님한테 잘못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고자질해서 이 사람을 욕을 먹게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도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면서 못마땅한 마음,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아시는 해와 이긴자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사람 방에다 그 사람과 같이 자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해와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할 것을 요구할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 열자리에 같이 자게 할 때는 필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여겼다. 해와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 청년을 내 방에 재우게 되었던 것이다. 나만 보면 미워하고 못마땅해서 얼굴을 찡푸리는 그런 사람과 한 방에서 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 청년과 같이 지내면서 자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



나를 미워하는 청년을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해와 나무로 불을 때주었다

여야 이 시합을 잘 이겨서 해와 주님의 뜻에 부응할까 여러 모로 고민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 청년을 진정으로 내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답이 나온 것이다.

산 중에 있는 밀실의 겨울은 그 추위가 너무도 혹독하다. 밤에 잠을 잘 때에 불을 피우고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또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을 데워도 아랫목만 따뜻하지 윗목은 냉랭하다.

그래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사람을 자게 하고 나는 한기가 스며드는 윗목에서 잠을 잤다. 그 청년을 아랫목에 재우고 추운 윗목에서 잠을 청하면 추워서 잠이 제

대로 오지 않는 그런 겨울을 같이 보내는 것이다.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잠을 설치게 될지라도, 옆에 자는 청년은 더워서 이불을 찢고 잔다. 그런 것을 보고 행여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 주고 신경을 써 주었다.

그렇게 겨울 긴 밤을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면 그 청년은 잘 잤다는 말도 없이 이불도 그대로 놔둔 채 나가버리면 대신 깨어주고, 방 정리 정돈을 하고 나왔다. 진실로 그 청년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갖은 모양으로 노력을 경주하며 살았다.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니 그 청년이 이 사람의 행동에 감동하여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긴 시간이 지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청년을 진실로 내 몸처럼 여기며 섬겼다. 마치못해서가 아닌 진심을 담아 그렇게 했다.

어느 겨울밤 잠을 잘 때, 청년의 차버린 이불을 추울까봐 가지런히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겉으로 잠을 잔 척하고 있었는지 그 청년이 누워 있으면서 흐느끼며 우는 것이었다.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조 사장을 미워했는데도 자기를 자기 방 아랫목에다 눕히고,

보살펴 주고, 사랑해주는 태도를 한결 같이 보여주게 되니 내심 감동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보아왔는데 조 사장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 청년은 그 이튿날부터는 왜 그런지 이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눈질로 자꾸 이 사람 얼굴을 살폈다. 아무리 얼굴을 봐보아야 이 사람은 변함없이 온화하고 다정한 낯으로 항상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것을 느끼고부터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람이 드디어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일하는 곳마다 따라붙어 다녔다. 이 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 그것을 자기가 뺏아서 일을 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힘든 일을 안 시키려고 애쓰는 미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긴자가 아니다. 자신 속에 사람을 털갈 만큼이라도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악이 없어야 의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